"어려운 구약, 이야기로 풀어내자"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구약학자와 목회자들 한자리에
구약본문 여전히 4권에 편중, 예언서는 '이사야서'가 압도적

한국교회가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35.6%로, 신약(63.5%)에 비해 절반 정도에 해당되며, 구약 성경에서는 지난 선교 100년처럼 최근 3년간도 시편—창세기—이사야—출애굽기 순으로 설교의 빈도수가 네 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15일 중앙성결교회에서 가진 한국구약학회 주최의 '구약과 설교'라는 주제의 송년학술대회에서 차준희 박사(한세대)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한 '최근 한국교회의 구약설교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한국교회 9개 주요 교단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 3개 교회씩 선정, 총 27개 교회의 설교를 분석한 결과 구약 35.6%의 설교 중 시편(17.2%), 창세기(16.2%), 이사야(11.3%), 출애굽기(7.9%), 신명기(5.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선교 100년 기간보다 최근 3년동안 네 권에 대한 편중도가 대폭(14.6%) 증가한 52.6%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구약성서 가운데 유독 이 네 권이 집중적으로 설교되는 것은 그 책들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구약의 폭넓은 세계가 몇 권으로 축소되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차준희 박사는 구약설교 중 예언서 설교의 비중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히브리어 성서 전체 분량 가운데 예언서가 차지하는 부분은 47%로, 율법서(오경)의 2배가 넘는 분량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언서 중에는 이사야의 사용 빈도 수(45.9%)가, 예레미야(16.5%), 에스겔(10.0%), 다니엘(5.8%) 등 다른 예언서에 비해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야서의 빈도수가 많은 이유는 "다른 예언서에서 찾기 어려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신약과 연결되는 유명한 메시야 본문(사 9, 53장)이 등장하며, 금식을 통한 축복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의 신앙적 특징에 부합한 본문의 제시(58장)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사야서 본문 설교는 본문의 배경과 양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본문의 본래적 의도를 정확히 살린 설교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야 9장은 처음부터 절기설교와 결부되어 본문 해석의 시야가 좁고 고정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발제자들— 맨위 왼쪽부터 박병욱 목사, 차준희 박사. 아래쪽 사진은 패널들— 오른쪽부터 한기채, 최종인, 김홍규, 김경호 목사.

구약세계, 몇 권으로 축소·선포 현상 시정돼야
'이용'이 아닌 구약 높이 세우는 설교여야
배경·양식 약해, 본문 의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차 박사는 성서적 설교를 위해 △주석에 기초한 본문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 △역사적 배경과 양식에 기초한 예언서 설교 △구약설교 본문의 다양화 △구약 예언자 신앙의 재발견과 선포(정의, 긍휼, 믿음) △2차 문헌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꼽았다(하단 표 참조).

한편 박병욱 박사(대구중앙교회)는 '이야기에 길을 묻다'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구약과 설교에 관해 30여 명의 목사에게 질문을 해보니 구약본문을 기피하는 이유는 난해한 본문이 많고, 시대적 상황이나 성경 기록 배경에 대한 부담 등 신학지식의 부족 때문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약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의 통전적인 이해를 위해서, 신구약을 함께 설교해야 균형있는 설교가 되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역사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임을 피력했다.

또한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재교육과 계속 교육을 위한 기회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구약신학의 대중화를 위해 신학자들은 "더 깊은 구약의 진리를 현장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한 방편으로 '신학을 이야기로 풀어' 구약학자들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자로 나선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설교자가 본문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며 때로는 해괴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들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이 노리개감이 되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설교자의 복음적 인격, 성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앙관이 수립돼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세계관과 인간관이 모든 설교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역사가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 부를 많이 소유한 왕을 대왕이라고 칭송하고 영웅이라고 하나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민중들 입장에서도 과연 영웅인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규 목사(인천내리감리교회)는 구약도 신약과 대등한 설교 본문으로 존중해야 마땅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라 설교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설교가 바르고 좋은 설교이기 위해서는 진정성, 진리성, 적합성, 변혁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결국 바르고 좋은 설교란 인간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이 합작하여 이뤄내는 인격적 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규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와 전혀 다른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구약 본문이라도 여전히 유효한 '호환적 연결고리'가 있다"면서 "그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구약 본문을 동시대화하여 현대의 회중에게도 의미깊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선 최종인 목사(평화성결교회)는 "구약신학의 대중화를 위해 각 교단의 목회자 연장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언론에 보다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구약에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인 목사는 "차 교수의 논문에서 이사야 9:6의 '기묘자라 모사라'는 '기묘한 모사라'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 구약 본문에서 설교의 모티브만 차용한다는 것, 본문이 가지는 의도나 배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뜨끔했다"며 "구약의 본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세우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기채 목사는 "소설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플롯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금광맥을 찾아 나서는 광부의 심정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굴하고자 노력하며,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왜,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질문한다"며 깨달음을 향한 질주의 과정을 소개했다.

양승록 기자

◇ 구약설교에 도움되는 2차 자료 ◇

1. 해설성경 : 〈족일성서공회판 해설 관주 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 〈굿 뉴스 스터디 바이블〉(대한성서공회), 〈스페셜성경〉(아가페)
2. 역사적 배경 : 〈이스라엘 역사〉(브라이트), 〈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로마인의 성전 파괴까지〉(허셜 생크스)
3. 본문의도 파악 : 〈현대성서주석서〉(한국장로교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성서주석〉(대한기독교서회), 〈WBC 성경주석〉(솔로몬), 〈국제성서주석〉(한국신학연구소)

성령과 선교 ㊵

최종인 목사

한국교회가 후임자 문제로 몸살을 크게 앓고 있다. 교회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안되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기업처럼 여기는지 누가 후임자로 오는가에 촉각을 세우게 된다.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경적이며, 선교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계승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간혹 불미스런 소문들이 선교지에서 새어 나오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이 아프다.

요근래 총회에서나 시니어 선교사들 모임에서, 혹은 후원교회들이 선교사들에게 '은퇴 준비는 되었는가?' '선교지는 어떻게 하고 물러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선교사역의 계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선교사 자녀에게 계승하는 방법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

선교사역의 계승

이 야곱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선교사는 자녀들에게 선교사역을 물려줄 수 있다. 언더우드나 유진벨 선교사처럼 3, 4대에 걸쳐 후손들이 계속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경우가 미국인 선교사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자녀에게 상속하고 사유화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람은

"선교지의 재산이나 물질은 사역에 필요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은퇴선교사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두 손 털고 나와야 한다"

거의 없다. 새로운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를 계승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익숙한 환경에서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학습한 선교사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때로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다.

선교사가 지명하는 방법 선교현장은 총회 선교국이나 후원교회 보다 선교사 자신이 제일 정확하게 안다. 선교사가 미리 점 찍어둔 후배 선교사를 지명하여 계승하게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명하여 후계자를 삼았다(왕상 19:19).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처럼 오랫동안의 협력사역으로 관계가 깊었다. 이때 후임자인 엘리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로 배웠다(왕상 19:21). 모세도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훈련시킨 후 후임자로 삼았다. 여호수아는 청년시절부터 모세를 가까이에서 시종으로, 또는 장군으로 전쟁을 치루었고,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루어낸 인물이었기에 후임자로 적절했다.

파송교회에 맡기는 방법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부흥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여 담임하게 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역을 잘 감당했고, 바울을 불러와 함께 동역하여 성공하였다(행 11:26). 이처럼 모교회는 선교지에 사역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어 일하게 하고, 계속 감독하여 사역의 연속성을 지키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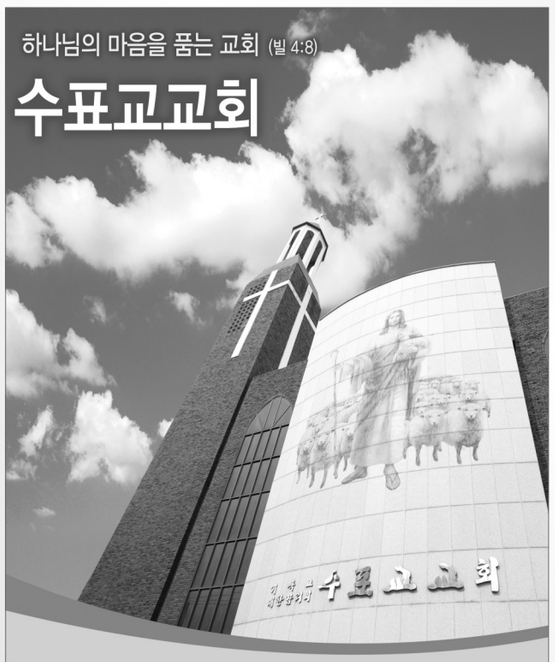
선교지의 재산이나 물질은 사역에 필요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은퇴선교사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두 손 털고 나와야 한다. 또한 후임선교사는 은퇴선교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역의 연속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은퇴자나 후임자나 결국 하늘나라에서 웃으면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교회 담임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나셨도다"

창곡교회

담임 고병수 목사
외 당회와 성도 일동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47-2
TEL : 031)421-9502,
FAX : 031)421-9617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빌 4:8)
수표교교회


담임목사 김 고 광
부 목 사 : 선교/박종헌, 교육/허정일, 성육원/정환용
소 속 목 사 : 한기령(원로) 김홍기(감신대) 심광섭(감신대) 한동구(평택대) 김용성(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파송선교사 : 서바울(중국) 진인우(중국) 조승현(인도) 한혁주(인도네시아)
교구전도사 : 강정옥 최태순
수련전도사 : 이세진 오영민
행정전도사 : 김은미
청년부전도사 : 한태현
교 육 사 : 최영락 홍지훈 유문현
시 무 장 로 : 이범석 이정우 이승언 서원용 김옥규 김창룡 김기수 김세영 이종구 김승익 남영진 정한수 장 준 김종남 박기원 서수걸 허 강 신선용 유신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1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
Tel 02-582-2557 FAX 02-582-2556 http://www.spk.or.kr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
익투스찬양단

단 장 박만길 장로
직전단장 이시걸 장로
선임부단장 나영주 장로
총 무 김윤국 장로
전단장
제1대 김용재 장로 제2대 박현권 장로 제3대 김용욱 장로 제4대 양기준 장로 제5대 최호철 장로 제6대 경홍국 장로
지휘 류현열 교수 부지휘 이중복 선생 반주 이수진 교수 부반주 이지원 선생
단 원
T1 강대엽, 강원석, 경홍국, 공호호, 김우철, 니영주, 명태영, 박기복, 박명철, 이재경, 조수찬, 추교문, 한재일, 권승호, 류단열, 이상현, 김용빈, 박열수, 신정희, 김태훈, 안재덕, 김남준
B1 김태성, 김석호, 김현식, 박종술, 박 훈, 배은주, 배현호, 백복현, 백명제, 석천국, 신은록, 안승래, 이상린, 이시걸, 이정현, 이지연, 이호창, 유영창, 장 웅, 조성건, 정원삼, 최석기, 최승복, 한광석, 황도창, 강연구, 조석환
T2 강기덕, 김윤국, 김재복, 손동환, 송영일, 박분도, 오성민, 유병철, 이기홍, 이상근, 이승훈, 이주복, 이창규, 임순기, 전상훈, 전성일, 최승현, 최영호, 최호철, 홍영기, 조중현, 문동학, 정성철, 이창우, 엄동진, 김대훈, 김태진, 김경환, 정성근
B2 강택구, 강재종, 고문곤, 김경웅, 김기우, 김동우, 김종해, 김현태, 유상녕, 류시달, 문명주, 박명철, 박민길, 박영걸, 방환수, 백수현, 변영군, 송길순, 신태수, 오해준, 윤효기, 이규익, 이문환, 이영묵, 임정의, 조동주, 조원규, 최경주, 최순삼, 황호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1010호 TEL. 070-7098-5007
http://www.ixtus.or.kr
입단문의 : 총무 김윤국 장로 011-717-8350

30년 전통의 가죽 수제
남성구두 전문업체
모든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패션 구두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은 구두를 원하십니까?
여기 천일제화가 여러분의 발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 천일제화의 제품은
■ 100%(소가죽) 천연가죽, "100% made in korea" 수제화입니다.
■ 〈다올〉, 〈CTS〉, 〈볼리니(bollini)〉, 〈씨티에스(CTS)〉, 〈시그마 21〉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착용감, 통풍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이미 10년전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천일제화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9-59
TEL : 02)902-0445